

對日鬪爭篇

國難克服史

筆者紹介

筆者是 慶北奉化胎生。서울市西大門區忠正路3街129에現住。50歲。京城帝大史學科를 졸업。서울文理大教授를거쳐 現 高大教授。

申 奭 鎬



우리나라와 日本과는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古來로 여러가지 交涉이 있었으며 특히 日本은 우리나라로부터 學問과 技術을 배워가 그들의 文化를 向上 發展시켰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4世紀中葉 高麗末期로부터 소위 倭寇을 조직하여 우리나라 沿海各地를 침략하여 마지아니하였으며 16世紀末葉 李朝 宣祖에 이르러서는 壬辰倭亂을 일으켜 대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침입하여 無辜한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 여러가지 文化財를 파괴하고 기타 갖은 蠻行을 감행하였으며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를 合併하여 36年間이나 우리 民族을 압박하고 착취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倭寇로 인한 우리의 國難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여기에서는 다만 壬辰倭亂에 限하여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것을 克服하였는가를 살펴보고 한다.

1

高麗末葉으로부터 우리나라 沿海各地에 침입하던 倭寇는 李朝初期 世宗大王時代に 倭寇의 소굴인 對馬島를 征伐하는 동시에 使臣을 日本政府의 代表機關인 足利幕府에 보내서 倭寇를 금하게 하고 또 對馬島主와 條約을 체결하여 倭寇을 禁止하는 책임을 지우고 그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對馬島主에게 每年 歲賜米豆 200石을 下賜할 뿐 아니라 每年 50隻의 歲遣艦을 보내서 朝貢貿易할 것을 許諾하여 對馬島倭人으로서 하여금 貿易의 利를 보게 하였으며

로 倭寇는 차차 사라지게 되었다.

爾後 約70餘年間 우리나라와 日本과의 사이는 平和가 계속되어 對馬島主의 歲遣艦과 기타 日本各地 倭人의 朝貢貿易艦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倭人의 出入港으로 지정한 熊川의 乃而浦(齊浦) 東萊의 釜山浦 蔚山의 鹽浦等 三浦는 크게 繁昌하였다. 그러나 三浦에 倭人이 많이 와서 살게 되어 그들은 國家의 禁令을 무시하고 農村과 海岸各地로 돌아다니며 방자한 行동을 할뿐 아니라 혹은 國家의 機密을 探知하여 그 泄洩가 적지 아니 하므로 中宗5年(西紀1910)에 釜山僉使 李友會이 國法에 의하여 그들의 行동을 구속하였던 바, 그들은 드리어 反抗할뿐 아니라 對馬島主와 結탁하여 유명한 三浦倭亂을 일으켜 李友會 以下 三浦의 邊將과 기타 人民을 많이 殺害하였다.

朝廷에서는 京軍을 파견하여 이를 平定하는 동시에 世宗朝에 체결한 約條를 破棄하고 爾後 일체 倭人을 接待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하였다. 원래 對馬島는 土地가 나빠서 產物이 전연 나지 아니 하므로 對馬島倭人은 每年 歲遣艦 50隻을 보내서 우리나라에 朝貢하고 우리나라로부터 米穀과 綿布物等의 賞賜를 받아서 生活하였다. 다시 말하면 對馬島倭人은 經濟的으로 우리나라에 依存하였었는데 三浦倭亂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 그들을 接待하지 아니하게 되자, 그들의 生活은 실로 艱難하였다. 그러므로 對馬島主는 우리나라와 和親하기 위하여 足利幕府로 하여금 이를 交涉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강경히

拒絕하였으나 幕府에서 보낸 소위 日本國王使僧 鵬中이 두번이나와서 懇請하고 나중에는 斷食戰術까지 썼다. 우리나라에서도 倭人과 영영 絶交하는 것이 利害지 못하므로 中宗7년에 和親을 허락하고 壬申約條를 체결하여 다시 對馬島倭人을 接待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約條는 世宗때의 約條보다 歲賜米 歲遣船을 각각 半減하여 歲賜米100石 歲遣船 35隻으로 定하고 倭人이 三浦에 居住하는것을 영영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20餘年間 倭人은 다시 우리나라에 來往하였으나 中宗39년에 蛇梁倭變이 일어나 倭船 20餘隻이 蛇梁嶺(慶南統營郡)에 侵入하여 人畜과 財貨를 掠奪하고 明宗10년에 乙卯倭變이 일어나 倭船70餘隻이 達梁浦(全南海南郡)에 들어와서 全羅兵使 兪績以下 많은 將兵을 죽이고 內陸으로 靈岩까지 侵入하여 殺傷 放火 掠奪等 갖은 蠻行을 行하였다 이 倭變은 朝廷에서 重臣 李浚慶을 파견하여 드디어 平定하였거니와 이후 우리나라는 倭人과 영영 絶交하였다.

2

乙卯倭變 以後 30餘年間 倭人은 자주 우리나라에 오지 못하였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倭人을 接待하지 아니할뿐 아니라 日本도 소위 戰國時代로 들어가서 저의들끼리 서로 戰爭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宣祖 9年(西紀1586년)에 賊魁 豐臣秀吉이 日本國內를 平定하고 政權을 잡게 되자 우리나라와 明나라를 征服하겠다는 妄想을 품고 對馬島主 宗義智로 하여금 우선 우리나라 使臣을 招請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宗義智는 그 家臣 橋康廣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通信使를 請하였으나 우리는 이를 拒絕하였다. 그 후 義智 自身이 와서 通信使의 과전을 懇請하고 우리나라에서도 日本의 國情을 살피기 위하여 通信使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宣祖23년에 正使 黃允吉 副使 金誠一 誓狀官 許箴을 日本에 파견하였는데 豐臣秀吉은 通信使에 대하여 오만한 태도를 보일뿐만 아니라, 日本이 明나라를 치겠으니 길을 빌려 달라고 그 뜻

을 國論에 적어 보냈다.

이것은 確實히 우리나라에 대한 宣戰布告라 하지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通信使 一行이 돌아온後 正使 黃允吉과 副使 金誠一의 報告가 서로 달랐다. 黃允吉은 末久에 倭寇가 侵入할 것이라 하고 金誠一은 그럴려가 없다 하고 모리어 黃允吉이 人心을 소동시킨다고 반박하였다. 當時 우리나라 朝廷에는 西人 南人 北人の 黨派 싸움이 심하였던 때이며 黃允吉은 西人이요 金誠一은 南人인 까닭에 大概 西人은 黃允吉의 말이 옳다하고, 南人은 金誠一의 말이 옳다하여 國論이 몹시 갈려게 되었다. 金誠一은 當時의 名士로서 日本에 있을 때 倭人과 抗辯하여 여러가지 使臣의 體面을 세운 일은 있다 할지라도 敵情을 잘못 판단하여 國論을 현혹하게한 罪는 결코 크다 하지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하여튼 豐臣秀吉은 아무 까닭 없이 侵略의 兇計를 꾸며 宣祖25年(西紀1592년)4월에 小西行長 加藤清正等 9將으로 하여금 15萬의 軍隊를 거느리고 우리나라에 侵入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때 倭軍은 모두 저의 나라에서 戰爭을 경험한 百戰老鍊한 將卒들로서 오늘날로 치면 原子彈과 같은 鳥銃이란 新武器를 가졌으며 우리나라 軍士는 數百年間 戰爭을 모르고 平和스러운 生活를 하던 農民을 모은 鳥合의 무리로서 활, 창과 같은 原始的 武器를 가졌을 뿐이며 火藥과 銃筒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數가 많지 아니하고 威力이 크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倭軍은 破竹之勢로 쳐 들어와서 4月13일에 釜山을 陷落하여 僉使 鄭撥을 죽이고 15일에 東萊를 陷落하여 府使 宋象賢을 죽이고 여기서 敵은 3路로 나누어 小西行長은 梁山 密陽 淸道 大邱 仁同 善山을 거쳐 25일에 尙州에 이르러 巡邊使 李鎰을 敗走하게 하고, 加藤清正是 蔚山 慶州 永川 義興 軍威 比安 龍宮을 거쳐 開慶에 이르러 小西行長과 합하여 鳥嶽을 넘어 27일에 忠州에 들어가 三道巡邊使 申磁과 싸워 申磁을 戰死시키고, 黑田長政은 金海 昌寧 星州 知禮 金泉을 거쳐 秋風嶺을 넘어 永同 淸州로 나와 서울로 進擊하였다.

倭寇가 侵入하였다는 報告가 서울에 들어온 것은 17일이었었다. 朝廷에서는 우선 李鎰을

慶尙道巡邊使에 任命하여 먼저 나아가 敵의 先鋒을 막게 하고, 뒤 이어 申磁을 三道巡邊使에 任命하여 南下하게 하였다. 申磁과 李鎰은 當時의 名將으로서 國家의 期待는 컸었던 것이다.

그런데 모두 한번 싸움에 敗하여 李鎰은 다 타나고 申磁은 戰死한 까닭에 宣祖는 할수 없어 妃嬪과 百官을 거느리고 23日에 서울을 떠나 西쪽 義州를 向하여 避亂하였다. 그러므로 倭軍의 先鋒將 小西行長과 加藤清正은 5月2日에 無難히 서울을 占領하였는데 倭軍이 釜山에 上陸한지 10日만에 서울을 빼앗기게 되었으니 실로 현심한 일이라 하지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敵軍은 後續部隊가 다 서울에 모인 후 小西行長과 加藤은 다시 西쪽으로 進擊하여 5月18日에 臨津江에서 都元帥 金命元의 軍士를 擊破하고 開城에 이르렀다. 行長은 平安道로 향하여 마침내 平壤을 占領하고 加藤은 咸鏡道로 들어가 會寧에 이르러 臨海郡과 順和郡의 두 王子를 사로잡고 其他 敵兵은 京畿 黃海 江原 忠清 慶尙道等 各地로 퍼져 나가 放火 掠奪 強姦 殺傷을 마음대로 하였다. 當時 全羅道를 除外한 7道江山은 倭軍에게 유린되지 아니한 곳이 없었으며 人民의 慘狀은 실로 말할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前古 未曾有의 大亂을 당하여 우리 祖上들은 어떻게 이를 克服하여 國家를 再建하고 民族을 救해 내었던가. 첫째로 忠武公 李舜臣 將軍의 功을 들지 아니 할수 없는 것이다. 李舜臣은 서울 대쟁으로 宣祖9年에 武科에 及第하였으며 智略과 勇力이 있고 爲人이 忠直하여 權門勢家에 아부라지 않고 正義를 위하여서는 끝까지 무정하였다. 그의 인격과 知略은 실로 위대하였으나 權門勢家에 아첨하지 않고 또 文을 존중하고 武를 賤하게 여기는 때문에 及第後 크게 出世하게 못하고 오랫동안 國境方面의 적은 守備將 혹은 적은 고을의 원군을 지내다가 宣祖24年에 그 親友 右議政 柳成龍의 推薦으로 全羅左道 水軍節度使가 되어 一方의 水軍을 통솔하고 그의 역량을 發揮할수 있는 機會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通信使 黃允吉 一行이 日本에서 돌아와 倭寇侵入

의 與否가 論議되었으므로 李舜臣은 그 任地 左水營(麗水)에 赴任한 後 管下 各 鎮浦의 水軍을 訓練시키고 軍器와 軍艦을 수리하고 새로히 거북선을 創案하여 크게 倭寇에 對備하였다. 倭寇야 侵入하건 말건 國家야 망하건 말건 民生이야 죽건 말건 一身의 榮華와 행복을 위하여 酒池肉林과 歌舞에 과몰려 國庫를 消耗하고 백성을 搾取하던 다른 將星에 비하여 李舜臣은 실로 群鷄一鶴이라 하지 않을수 없었다. 과연 그 이듬해 壬辰年 4月에 倭寇가 大舉來侵하여 小西行長等이 釜山에 상륙하는 동시에 水軍大將 脇坂安治等이 兵船數百隻을 거느리고 巨濟島 앞바다에 이르렀다. 이 海面의 賊을 防禦할 責任者는 慶尙右水使 元均인데 元均은 賊勢가 매우 큰것을 보고 싸우지도 않고 다 타나려고 하다가 部將 李英男의 勸告로 李舜臣에게 應援을 請하였다. 이 急報를 받은 李舜臣은 全羅右水使 李德棋와 함께 兵船을 거느리고 元均과 會見하고 作戰計劃을 세워 5월 7日 玉浦에서 倭船30餘隻을 깨뜨리고 6월 2日에 蔚浦에서 또 20餘隻을, 또 5月에 閑山島에서 百餘隻을 擊破하여 敵을 全滅시켰다. 元來 敵의 水軍은 西海로 나아가 平壤에 있는 小西行長과 並行하여 遼東으로 進擊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李舜臣의 閑山島大捷으로 말미암아 그 計劃이 挫折되어 小西行長이 平壤以西로 進出하지 못하였으며 全羅道에 倭軍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가 西海의 制海權을 掌握하여 沿岸 各地의 軍糧을 運搬하고 명령을 전달하고 나아가 明나라의 應援을 얻어 中興의 功業을 이루게 된 것은 모두 이 一戰에 달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宣祖는 李舜臣을 한 階級(資憲大夫) 陞進시켜, 三道水軍統制使에 任命하여 우리나라의 水軍을 總指揮하게 하였다. 이에 李舜臣은 閑山島에 統營을 排設하니 敵의 水軍은 다서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리고 陸上에서는 義兵을 일으켜 國家와 民族을 위하여 싸운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 義兵大將中 가장 활약한 이는 慶尙道의 郭再祐, 金沔, 忠清道의 趙憲, 全羅道의 高敬命, 金千鎰, 金德齡, 咸鏡道의 鄭文學等이며 妙香山

의 休靜(西山大師), 金剛山の 惟政(四明堂)湖
西의 靈圭, 湖南의 處英等 入山 修道하던 僧
侶도 僧兵으로써 많이 싸웠다.

3

通信使 黃允吉이 日本에 갔다온 後 우리나라
라는 언더라 使臣을 明나라에 派遣하여 求援
을 請하였다. 처음에 明나라는 우리가 倭軍을
끝고 明나라를 치러오는줄 誤解하였으나 뒤에
그렇지 않다는것을 알고 兵部尙書 石星의 主張
으로 爲先 遼東總兵 祖承訓과 遊擊 史儒를 보
내어 우리나라를 돕게 하였다.

그런데 明軍은 平壤에 와서 小西行長과 싸
우다가 도리어 敗하여 史儒는 戰死하고 祖承
訓은 逃亡하였다. 이에 明나라는 遊擊將軍 沈
惟敬을 平壤에 보내서 和議를 提唱하는 동시
에 經略(總司令官) 宋應昌과 提督 李如松에게
4萬 大兵을 주어 再次 倭軍을 공격하게 하였
다. 李如松은 宣祖26年 正月8日에 平壤을 收復
하고 南으로 倭軍을 追擊하였으나 26일 碧蹄
館(高陽郡)싸움에서 敗하여 開城으로 後退하
였다. 이에 明將은 싸움을 斷念하고 다시 沈惟
敬을 서울에 있는 倭軍 陣中에 보내서 和議를
교섭하게 하였다. 敵長 小西行長도 明나라와
싸우는것이 이룰지못하다는 것을 깨달고 서울
을 撤退하여 全軍을 蔚山 釜山 熊川等地에 駐
屯시키고 沈惟敬을 다리고, 名古屋에 가서 直
接 豐臣秀吉과 교섭하게 하였다. 豐臣秀吉은
媾和條件으로 明나라 皇室의 딸을 日本國王의
后妃로 삼을 것, 朝鮮의 王子와 大臣을 日本
에 留置시킬것等 어떠운 문제를 많이 내놓았
으나 沈惟敬은 이러한 문제는 다 秘密에 부치
고 다만 豐臣秀吉을 日本國王에 封하여 朝貢
貿易할것을 許諾한다는 封, 貢 두가지 條件을
가지고 本國에 교섭하여 皇室의 허락을 받았
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積極 媾和에 반대하
였으나 明나라는 듣지않고 宣祖29年4月에 正
使 楊方亨, 副使 沈惟敬을 日本에 再派遣하여
豐臣을 封하여 日本國王으로 삼는다는 國書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豐臣은 이것을 물리치고

通信使 黃寅이 가지고 간 우리나라 國書도
받지않았다. 뒤에 沈惟敬은 국가를 欺瞞하였
다는 罪로 死刑을 받게 되었거니와 豐臣은 媾和
條件이 자기 뜻에 맞지않으므로 宣祖30年 正
月에 다시 軍士를 일으켜 우리나라에 侵入하
였는데, 이것이 丁酉再亂이다.

丁酉年에도 小西行長과 加藤清正가 先鋒이
되어 釜山에 上陸하여 東萊 蔚山 金海 泗川
晉州等地을 점령하였거니와 日本의 水軍大將
脇坂安治等이 閑山島에 이르러 統制使 元均의
水軍을 擊破하고 水陸 兩軍이 並行하여 全羅
道로 侵入하였다. 이때에도 우리나라는 明나라
에 救援을 請하고 經路 楊鎬와 總兵 麻貴가와
서 그 將 楊元을 南原에, 陳恩哀를 全州에 配
置하였으나 모두 倭軍에게 敗하였다. 倭軍은 다
시 忠清道에 侵入하여 稷山까지 올라 왔다가
10月에 後退하여 慶尙道 全羅道 海岸 各地에
倭城을 쌓고 겨울을 지내었다. 그해 12月에 明
將 楊鎬가 4萬 大兵으로 우리나라 都元帥 權
慄과 合勢하여 蔚山倭城(加藤清正)을 공격했
으나 이기지못하였으며 이듬해 7月에 楊鎬가
經略(總司令官)을 免하고 萬世德이 代身하여
軍士를 四路로 나누어, 東路는 麻貴, 中路는
董一元, 西路는 劉正, 水路는 陳璘으로 提督
을 삼고 數次 倭軍을 공격하였으나 모두 못기
기고 오직 우리의 水軍大將 李舜臣만이 여러
번 倭軍을 擊破하였다.

4

앞서 李舜臣이 三道水軍統制使가 되어 水軍
을 總指揮하게 되자 慶尙右水使 元均이 先驅
로서 李舜臣의 밑에 있는것을 분하게 생각하
고 여러가지로 모함한 까닭이 朝廷에서는 李
舜臣의 評이 좋지못하였다. 특히 李舜臣은 南
人 柳成龍이 推薦한 사람이요 元均이 西人과
결탁하여 李舜臣을 모함한 까닭에 西人들 사
이에 李舜臣의 評이 좋은理없었다. 또 倭軍도
李舜臣을 죽이려고 여러가지 謀略을 하였다.
當時 敵軍사이에도 小西行長은 和議를 주장하
고, 加藤清正是 전쟁을 주장하여 두 사람은

서로 원수를 맺게 되었으며 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고 있었다. 丁酉倭亂이 일어나기 조금전에 小西行長이 間諜 要時羅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加藤清正이 전쟁을 고집하고 某月某日에 다시 朝鮮에 건너가니 李舜臣으로 하여금 이 加藤을 잡아죽이게 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물론 우리水軍을 바다에 끌어내어 一舉에 殲滅하려고 한 謀略이었다. 朝廷에서는 謀略에 빠진줄모르고 要時羅에게 厚한 賞을 베푸는 동시에 李舜臣을 그 期日和 장소에 나아가 加藤을 잡으라고 命하였다. 그러나 李舜臣은 여기에 반드시 謀略이 있는줄 알고 指示한 그날과 場所에 出動하지 않았다. 李舜臣은 元均의 謀陷으로 評判이 좋지못하던 판에 이와같이 朝廷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西人 尹斗壽 尹根壽 형제가 일어나 李舜臣을 彈劾하여 드디어 宣祖 30年 正月에 서울로 잡아올렸다. 當時 朝廷에서는 李舜臣을 重罪에 處하려고 하였으나 鄭琢의 上疏로 겨우 추점을 免하고 白衣從軍하게 하였다.

李舜臣이 서울로 잡혀올라간 후 元均이 代身하였는데, 元均은 李舜臣이 制定한 統制營의 軍規를 모두 고치고 部下를 統率함에 節도가 없었으며 酒色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그해 7월에 閑山島에서 敗하여 자신이 敵의 칼에 죽었을 뿐 아니라, 李舜臣이 培養한 國家의 干城인 水軍을 覆滅시키고 閑山의 要衝을 敵에게 빼앗겨 敵으로 하여금 全羅道로 들어오게 하였

나. 이 보고를 받은 朝廷에서는 다시 李舜臣을 統制使에 起復(喪主를 官吏로 任用하는말)하였다. 이때 李舜臣은 어머니의 喪事을 당하여 牙山 鄉第에서 執喪하고있다가 起復의 命을 받고 8月18일에 會寧浦(全南長興郡)에 이르러 兵船 12隻과 散卒 數百名을 收合하여 南海에서도 가장 潮流가 급한 鳴梁(울돌목 全南 珍島와 右水營 사이의 좁은 海面)에 陣을 치고 慶尙右水使 護輿의 兵船 12隻과 合勢하여 西海로 나오려고 하는 敵을 待機하고 있었다. 9월16일에 倭船 130餘隻이 西海로 向하여 鳴梁으로 들어오매 李舜臣은 29餘隻밖에 안되는 兵船을 끌고 이를 맞아 싸워 倭船 13隻을 깨뜨리고 倭將 1名을 죽이니 나머지 倭船은 모두 逃走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鳴梁大捷으로서 倭亂中 가장 赫赫한 戰果를 거둔 것이며 이 까닭에 忠淸道 지방까지 侵入하였던 倭軍이 北進하지 못하고 慶尙道 全羅道 海岸 地帶로 後退하게 된 것이다. 이듬 해 7월에 李舜臣은 또 古亭島(莞島郡)에서 倭軍을 擊破하여 크게 우리나라 水軍의 氣勢를 올렸으나 豐臣秀吉의 추진으로 말미암아 倭軍이 總退却할 때 順天 倭城에 있는 小西行長의 退路를 막고 露梁津(慶南南海郡)에서 싸우다가 敵의 流彈에 아깝게도 戰死하였다. 이것이 宣祖31年(西紀1596) 11月19日, 蓋世英雄의 戰死과 더불어 7年間이나 계속하던 倭亂도 이것으로써 幕을 닫게 되었다.

祝 發 展

圖 書 都 賣

文 華 書 店

서울特別市鍾路區仁寺洞119

圖 書 都 賣

學 林 書 店

서울特別市鍾路2街8

釜 山 支 店 서 울 書 店
釜 山 市 大 廳 洞 3 街 16